

# 광산구 비정규직 제로 선언 전국이 주목

비정규직 제로 선언 주목받는 이유

고용 사전심사제로 비정규직 채용 원천 차단 시스템 구축  
고용 안전·처우 개선 위한 사회서비스 전담기구 설립 추진  
내년부터 노동시간 단축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기로

## 구립도서관·지역 복지시설 직원 등 54명 정규직 전환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분 전환에서 나아가, 사각지대 노동자 문제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광산구 발표에 따르면 이번엔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모두 54명으로 구립도서관에서 자료정리원으로 일하거나, 지역 복지시설에서 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들이다.

광산구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비정규직 채용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날 선언에서 민 청장은 '근로자 고용 사전 심사제'

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정규직 채용을 금하는 것. 6개월 이내 일시·계절적 업무, 휴직자 대체 인력 등 5가지 경우로 비정규직 채용을 한정했다. 채용 장구도 '근로자 고용 심의위원회'로 일원화했다.

둘째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 청장은 "사회서비스 전담 기구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배제했지만, 보육·요양·교육 등 공공성이 높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사회서비스 전담 기구로 이루겠다는 의미다. 민 청장이 밝힌 '사회서비스 전담 기구'는 문재인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사회서비스 공단'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지난 16일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달 14일 공무원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54명의 정규직 전환을 의결했다.

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내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도 관심을 끈다. 광산구 전체 직원이 하루 8시간 근무원칙을 확립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칫 하락할 수 있는 업무 생산성과 지속성은 신규로 채용한 인력을 근무하게 함으로써 해결한다는 게 골자다.

광산구가 수립 중인 계획을 보면, 조직

진단을 실시해 업무 과중 부서 인력을 충원하고 부서장의 '책임 통제'하에 초과근무를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광산구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평균 시간은 2015년 29시간에서 2017년 6월 말 현재 20시간으로 하락 추세이다. 이러한 초과근무를 원칙적으로 통제해 얻은 재원을 신규 인력 채용에 사용,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민 청장의 구상이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광산구가 진행하는 대표적인 직접 민주주의 모델 '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가 마을축제와 결합한다. 주민들은 스스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투표로 해결 순위를 결정한다. 지난해 9월 신가동 주민들이 마을의제 투표를 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제공〉

## 주민 참여 대표 모델 '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

# 마을축제와 결합해 열린다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주민 참여와 자치 대표 모델로 평가받는 광주 광산구의 '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이하 주민회의)가 축제로 진화한다.

올해로 8회째인 주민회의는 지난 5일 신가동을 시작으로 광산구 21개 동에서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주민회의는 진화하고 있다. 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진행하던 주민회의가 실외 마을축제로 발전했다. 수완동, 송정1동, 어룡동, 우산동, 첨단2동, 신장동, 삼도동 등 7곳이 마을축제와 주민회의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마을축제와 주민회의 결합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다. 7개 동은 오래전부터 매년 또는 격년으로 마을축제를 열고 있다. 길게는 10년 이상 마을축제로 주민참여 기반을 탄탄하게 다진 공통점이 있다. 마을축제로 주민회의를 진행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가할 것이라는 게 이들 마을의 계산이다. 실내 회의보다 자연스럽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을의제 제안이 활발하고, 토론의 수위도 보다 깊어진다는 점도 또 다른 장점이다.

둘째는 자치역량의 성숙이다. 2014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씩 주민회의를 진행하면서 마을을 대하는 주민들의 애정이 깊어졌기 때문에 형식은 문제가 아니라는 자신감이다.

주민회의에서 의논할 마을의제의 공공성이 회를 거듭할수록 강해지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민원이 많은 초창기 모습에서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

동체 모습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문화가 뿌리내렸다. 지난 5일 신가동 주민회의가 좋은 사례다. 주민들은 안전으로 채택한 마을의제 중 공유농장고를 설치해 반찬을 나누고, 갈등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재개발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마을을 기억할 '옛 마을 기억관'도 주민들이 만들기로 했다.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총회를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해 주민회의에서 의논할 마을의제를 선정하는 게 추진 위 몫이다. 광산구가 개발해 배포한 모바일투표 애플리케이션 '광산열보팅'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례가 늘어 마을의제 선정 방식도 입체적으로 변하고 있다.

광산구청장의 '동 순방'에 익숙해 잘 나서려 하지 않았던 초창기에 비해 지금은 주민들의 토론 분위기와 의견 제출이 비교할 수 없이 활발하다는 것이 광산구 관계자의 전언이다. 마을의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토론과 투표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직접민주주의의 뿌리가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것.

광산구는 올해 하반기 주민회의가 마무리되면 주민들이 선정한 마을의제 실현을 위해 행·재정적 뒷받침에 나선다. 예산 지원 내용과 필요한 행정 절차를 주민에게 알리고 협의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광산구 공공활동지원센터는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 기관 공모에 선정돼 사업 자금 등을 확보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기원태기자 wtkee@kwangju.co.kr

## 유시민이 주목한 광산구 노동정책

# 사회적경제 새로운 모델 클린광산협동조합 '썰전'서 정규직 전환 제3의 해법으로 제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구청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현했다. 그 때 '노동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철학을 지녔기 때문에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다르다. 이 것이 바로 민주당의 정신이다."

지난 2012년 5월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밝힌 광주 광산구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시작한 광산구 노동정책은 우리 사회의 주목 대상이다. 강자독식의 경제구조가 낳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돌파구를 개척해서 그렇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공공성 증대와 노동 존중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달성한

클린광산 협동조합이 관심을 받고 있다.

시작은 2011년 1월 광산구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었다. 당시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 "광산구 정규직 전환을 계기로 동일 업무가 계속되는 데도 11개월만 근무케하고 그만두게 강요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5년 5월 정규직 정책을 언급했다. 민 청장 등 전국 14개 기초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어르신 일자리, 사회적경제, 복지, 친환경 무상급식에 이르기까지 생활정치에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클린광산 협동조합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2013년 1월 출범한 클린광산 협동조



유력 인사들이 광산구 노동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 6월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새로운 정규직 전환 해법으로 클린광산 협동조합을 소개했다.

합은 광산구와 위탁계약을 맺은 청소업체 노동자들이 설립했다. 직원 모두가 사장이 되는 협동조합 특성으로 고용 안정과 임금 현실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델을 제시했다.

희망제작소는 2014년 4월 발간한 전국 지자체 혁신사례집에 클린광산 협동조합을 수록했다. 희망제작소는 "공공사업의 수익이 지역으로 환원돼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역형 사회적경제의 새 모델"이라고 밝혔다.

클린광산 협동조합은 'JTBC'의 간판 시사예능프로그램 '썰전'에 두 차례 소개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70회와 221회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정규직 전환 제3의 해법'으로 클린광산 협동조합 모델을 소개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각종모임·행사·세미나는 지리산 관광온천지구 K호텔에서!



## ★ K호텔의 5대 특징 ★

- ▶ 깨끗하고 저렴한 객실요금
- ▶ 넓고 쾌적한 대형 세미나실
- ▶ 전망좋은 바베큐 시설
- ▶ 무료로 사용 가능한 노래방 시설
- ▶ 직접 조리해서 먹을수 있는 식당
- ▶ 문의. 010-3605-5000